

# 2024년 3분기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

2024. 10

## 해외건설협회



\* 국가통계: 국가별, 지역별, 공종별

# 목 차

## I. 2024년 1~3분기 수주실적

1. 개괄 .....	1
2. 지역별 .....	3
3. 공종별 .....	4
4. 국가 및 기업별 .....	5

## II. 참고자료

참고 1. 2024년 주요 신규 계약 공사목록 .....	6
참고 2. 세계건설시장 동향 .....	7
참고 3. 지역별 건설시장 동향전망 및 주요특징 .....	8

# I. 2024년 1~3분기 수주실적

## 1.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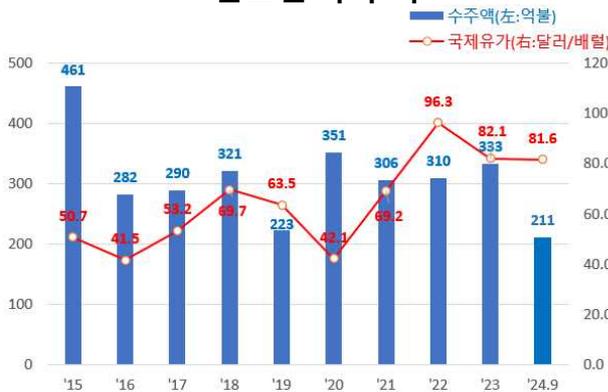
○ (총괄) 297개사가 90개국에서 427건 **211.1억불** 수주(전년동기 대비 89.7%)

- \* 지역별: 중동 119.4억불(56.6%), 아시아 29.8억불(14.1%), 북미·태평양 26.7억불(12.7%) 등
- \* 공종별: 산업설비 143.3억불(67.9%), 건축 41.5억불(19.7%), 용역 13.0억불(6.2%) 등
- \* 국가별: 사우디 95.9억불(45.4%), 미국 26.0억불(12.3%), 헝가리 20.4억불(9.7%) 등
- \* 자원별: 도급 191.1억불(90.5%), 개발형 20.0억불(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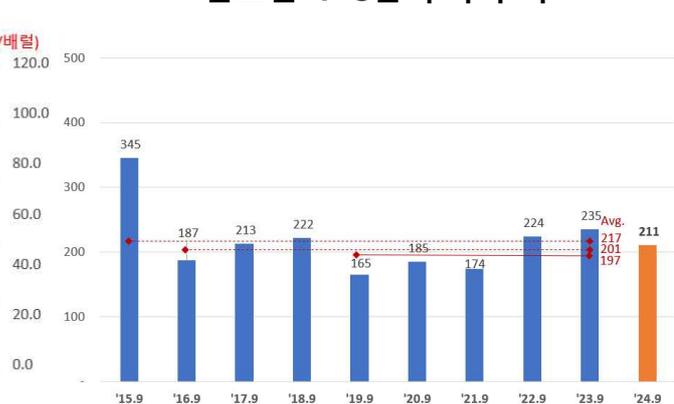
<연도별 1~3분기 수주현황>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3Q
1~3분기	수주액(억불)	345	187	213	222	165	185	174	224	235	211
	수주건수(건)	475	396	483	455	472	402	345	402	443	427
연간	수주액(억불)	461	282	290	321	223	351	306	310	333	-
	수주건수(건)	697	607	624	661	667	564	499	580	606	-
1~3분기 수주액 비중(%)		75	66	73	69	74	53	57	72	71	평균 68

<연도별 수주액>



<연도별 1~3분기 수주액>



[출처: 해외건설협회]

### ○ (주요특징)

- (최근 5년 평균 수준 유지) 최근 5년 1~3분기 평균 197억불 및 최근 8년 평균(연간 300억불 내외 수주 기간) 201억불 대비 소폭 상회한 수준이나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
- (중동·산업설비 강세 계속) 중동 내 산업설비 수주(108.1억불)가 1~3분기 전체 수주(211.1억불)의 56.6%\* 차지,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
  - \* 중동·산업설비 비중: 1분기 33.0% → 1~2분기 59.0% → 1~3분기 56.6%

- (미국 제조사 공사 감소) '22.8월 발효된 IRA, CHIPS 등의 영향으로 국내 제조사의 미국 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공장 건설은 '21년 9.4억불에서 '22년 29.4억불, '23년 91.2억불로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 14.0억불, 2분기 7.6억불, 3분기 3.0억불 등 총 24.7억불을 수주하며 지난해 동일 기간 69.4억불의 약 1/3 수준

- \* 미국 1~3분기: ('21) 9.3억불 → ('22) 21.4억불 → ('23) 69.4억불 → ('24) 24.7억불
- \* 미국 1~4분기: ('21) 9.4억불 → ('22) 29.4억불 → ('23) 91.2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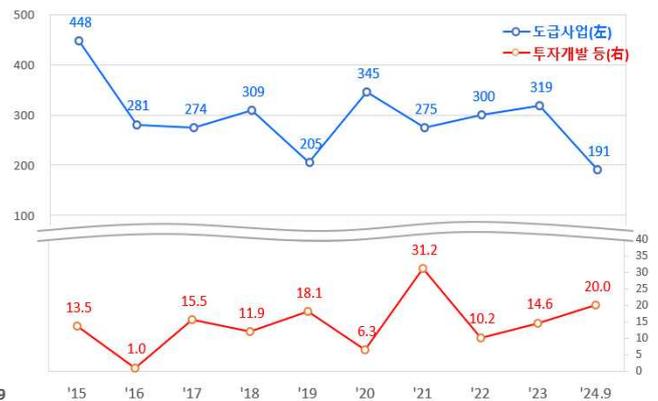
- ※ 인니, 베트남 등 전체 제조사 공사 수주 규모는 59.0억불로 최근 3년 평균(58.1억불) 수준
- \* 전체 1~3분기: ('21년) 20.7억불 → ('22년) 71.7억불 → ('23년) 81.8억불 → ('24년) 59.0억불
- \* 전체 1~4분기: ('21년) 34.1억불 → ('22년) 98.5억불 → ('23년) 118.2억불

- (토목 공사 감소 계속) 중동 산업설비 수주 증가와 미국, 인니, 베트남 등 국내 제조사의 해외공장(건축) 확대로 산업설비 및 건축 비중은 늘어났으나, 토목공사는 '23년부터 감소 추세

<연도별 공종별 수주 비중 추이>



<연도별 도급/개발 수주 추이(억불)>



[출처: 해외건설협회]

- (투자개발형 비중 증가) 1~3분기 20.0억불을 수주하며 금액 및 비중 증가추세. 필리핀 NAIA 공항 PPP(인국공, 3.1억불), UAE 및 오만 태양광 IPP사업(서부발전, 2건 3.2억불) 등 공기업 실적 확대

- \* 전체(억불): ('20) 6.3 → ('21) 31.2 → ('22) 10.2 → ('23) 14.6 → ('24.9) 20.0
- \* 전체( % ): ('20) 1.8 → ('21) 10.2 → ('22) 3.3 → ('23) 4.4 → ('24.9) 9.5
- \* 공기업(억불): ('20) 1.2 → ('21) 0.1 → ('22) 1.6 → ('23) 2.8 → ('24.9) 6.9
- \* 공기업( % ): ('20) 19.0 → ('21) 0.3 → ('22) 15.7 → ('23) 19.2 → ('24.9) 34.5

## 2.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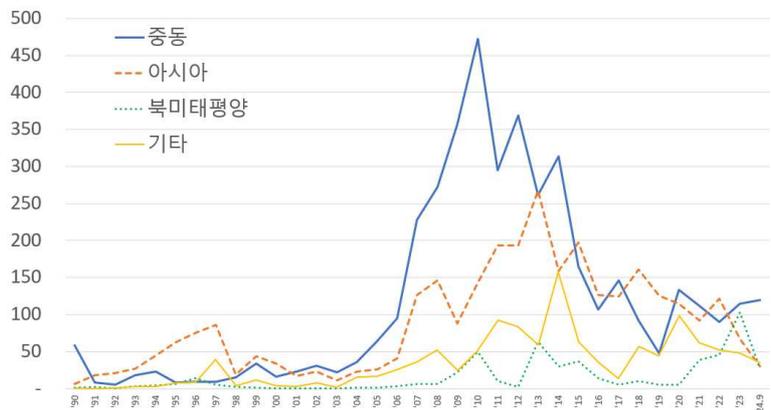
- 중동(55%), 아시아(15%), 북미·태평양(13%) 순 수주
  - (중동) 수주 비중은 57%(119.4억불)로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PKG 1·4(60.8억불) 및 PKG 2(12.2억불), 카타르 알 샤흐인 유전 고정식 해상 플랫폼(11.5억불), 사우디 화학 플랜트 4건(10.5억불), UAE 아즈반 태양광 발전(1.9억불) 등을 수주하며 전년 대비 49.5% 증가
  - (아시아) 토목·산업설비 공사 수주 감소로 14% 비중을 차지하며 2년 연속 하락, 전반적인 약세
    - \* 1~3분기 전체(억불): ('20) 79.2 → ('21) 78.7 → ('22) 91.9 → ('23) 46.8 → ('24) 29.8
    - \* 연간 전 체(억불): ('20) 114.8 → ('21) 92.5 → ('22) 122.0 → ('23) 67.9
    - \* 연간 토 목(억불): ('20) 39.2 → ('21) 34.0 → ('22) 28.9 → ('23) 4.5
    - \* 연간 산업설비(억불): ('20) 35.1 → ('21) 38.3 → ('22) 50.0 → ('23) 21.5
  - (북미·태평양) 지역별 수주 비중은 13%로 중동, 아시아에 이어 세 번째이고 국내 제조사의 신규 발주가 줄면서 전년 대비 64% 감소
    - \* 역내 수주액(26.7억불) 중 국내 제조사 발주공사는 25.2억불(94.2%)이며, 신규공사(14.1억불, 56%)보다 기존공사 증액(11.1억불, 44%) 비중이 높음
  - (기타지역) 헝가리에서의 국내 제조사 공사 수주(20.0억불)로 유럽 지역은 동기 대비 2배 증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주액(21.1억불)을 상회. 수주 비중이 5%인 중남미·아프리카는 기업의 수주활동 위축 등으로 감소

<지역별 수주현황>

구 분	'24년 1~3분기		'23년 1~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누계(~'24.3분기)	
	금액 (백만불)	비중 (%)	금액 (백만불)	비중 (%)		금액 (백만불)	비중 (%)
중동	11,941	56.6	7,985	33.9	149.5	494,319	50.2
아시아	2,983	14.1	4,682	19.9	63.7	313,992	31.9
북미태평양	2,673	12.7	7,422	31.5	36.0	54,028	5.5
유럽	2,443	11.5	1,164	5.0	209.8	41,372	4.2
중남미	902	4.3	1,338	5.7	67.4	51,021	5.2
아프리카	170	0.8	940	4.0	18.1	30,210	3.0
합계	21,112	100.0	23,531	100.0	89.7	984,942	100.0



<'24년 1~3분기 지역별 수주 비중>



<지역별 수주(억불)추이('90~'24)>

### 3. 공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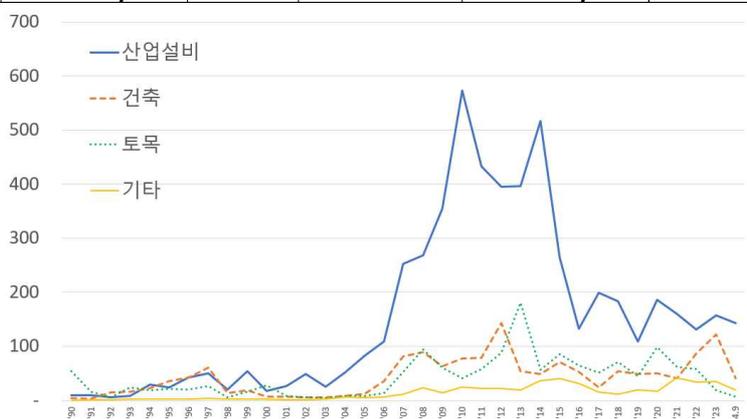
- 산업설비(68%), 건축(20%), 용역(6%) 순 수주
  - (산업설비) 수주액은 143.3억불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5% 증가. 공종별 비중 또한 46.7%에서 67.9%로 확대.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카타르 유전 해상플랫폼, 사우디 SEPC 석유화학 플랜트 등 가스·원유, 석유화학 플랜트\*가 산업설비 수주액의 75.0% 비중을 차지했으며, 발전설비\*\* 수주는 감소
    - \* 가스·원유·석화(%): ('20) 66.1 → ('21) 65.4 → ('22) 55.8 → ('23) 66.8 → ('24.9) 70.4
    - \*\* 발전설비(%): ('20) 23.3 → ('21) 17.9 → ('22) 28.0 → ('23) 20.4 → ('24.9) 6.8
  - (건축) 미국·사우디 자동차 관련 공장(11건, 23.2억불 신규·중액), 대만 가오슝 복합개발(2.3억불 중액), 인니 KT&G 공장(1.7억불), UAE 크릭 워터스 레지던스(2건, 2.2억불) 등 41.5억불 수주, 전년 동기 대비 53.9% 감소
  - (용역) 지분투자자로 참여한 필리핀 NAIA 공항 PPP사업(인천공항 공사, 3.1억불) 및 UAE·오만 태양광 IPP 사업(한국서부발전, 총 3.2억불)을 비롯해 사우디 상하수도 컨설팅 용역(0.8억불), 말련 PEC아로마틱 플랜트 시운전(0.5억불), 필리핀 PGN 교량 컨설팅 용역(4개사, 총 0.3억불) 등 전년동기 대비 91.0% 증가한 13.0억불 수주
  - (기타) 토목 및 전기는 가격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익성 위주 선별 입찰 참여 영향으로 동기 대비 50~60% 감소
    - \* 토목·전기 1~3분기 평균(5년, '19~'23): 토목 30.6억불, 전기 7.3억불
    - \* 토목·전기 1~3분기 평균(10년, '14~'23): 토목 38.9억불, 전기 6.3억불

<공종별 수주현황>

구 분	'24년 1~3분기		'23년 1~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누계(~'24.3분기)	
	금액 (백만불)	비중 (%)	금액 (백만불)	비중 (%)		금액 (백만불)	비중 (%)
산업설비	14,328	67.9	10,983	46.7	130.5	557,990	56.6
건축	4,154	19.7	9,001	38.2	46.1	194,475	19.7
용역	1,301	6.2	681	2.9	191.0	24,604	2.5
토목	718	3.4	1,334	5.7	53.8	179,047	18.2
전기	561	2.6	1,518	6.4	37.0	25,153	2.6
통신	50	0.2	14	0.1	345.4	3,673	0.4
합계	21,112	100.0	23,531	100.0	89.7	984,942	100.0



<'24년 1~3분기 공종별 수주 비중>



<공종별 수주(억불)추이('90~'24)>

## 4. 국가 및 기업별

- (국가별) 상위 10개국 수주 비중이 86%(182억불)이며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젝트(73억불) 수주 영향으로 사우디 1위(45%, 96억불), 국내 제조사의 해외 생산공장 건설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12%, 26억불) 및 헝가리(10%, 20억불)가 각각 2위와 3위 차지

<수주 상위 10대 국가>

순위	국 가	'24년 1~3분기		'23년 1~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누계(~'24년 3분기)	
		금액(백만불)	비중(%)	금액(백만불)	비중(%)		금액(백만불)	비중(%)
1	사우디	9,594	45.4	6,237	26.5	153.8	175,251	17.8
2	미국	2,604	12.3	7,225	30.7	36.0	26,483	2.7
3	헝가리	2,037	9.7	88	0.4	2,317.0	5,028	0.5
4	카타르	1,255	5.9	41	0.2	3,035.4	29,931	3.0
5	브라질	615	2.9	63	0.3	977.9	7,396	0.8
6	필리핀	523	2.5	78	0.3	669.8	19,712	2.0
7	말련	405	1.9	23	0.1	1,747.7	24,869	2.5
8	오만	405	1.9	-	-	-	11,930	1.2
9	UAE	374	1.8	861	3.7	43.4	84,467	8.6
10	캄보디아	362	1.8	55	0.2	662.1	3,051	0.3
<b>1~10위 소계</b>		<b>18,174</b>	<b>86.1</b>	<b>14,672</b>	<b>62.4</b>	<b>123.9</b>	<b>388,118</b>	<b>39.4</b>
기 타		2,938	13.9	8,860	37.6	33.2	596,824	60.6
<b>합 계</b>		<b>21,112</b>	<b>100.0</b>	<b>23,531</b>	<b>100.0</b>	<b>89.7</b>	<b>984,942</b>	<b>100.0</b>

[출처: 해외건설협회]

- (기업별) 1~3분기 수주 상위 10개사의 비중은 91.5%(193.3억불)로 지난해(91.6%)와 비슷한 수준이며, 그 외 221개사는 8.5%(17.8억불)를 차지
  - 수주 누계 상위 10개사 중 올해 1~3분기 10위 내 포함된 기업은 5개 (삼성E&A, 현대ENG, GS건설, HD현대중공업, 삼성물산)이며, SGC E&C(누계 22위), 인천국제공항공사(누계 73위), 한국서부발전(누계 105위), 쌍용건설(누계 15위), 엘티삼보(누계 28위) 등은 약진을 보임

<수주 상위 10대 기업>

순 위	'24년 1~3분기			'23년 1~3분기			누계(~'24년 3분기)		
	업체	금액(백만불)	비중(%)	업체	금액(백만불)	비중(%)	업체	금액(백만불)	비중(%)
1	삼성E&A	7,909	37.5	삼성물산	5,780	24.5	현대건설	144,761	14.7
2	현대ENG	4,113	19.5	현대건설	5,617	23.9	삼성물산	88,836	9.0
3	GS건설	2,351	11.1	현대ENG	2,874	12.2	삼성E&A	85,306	8.7
4	삼성물산	1,339	6.3	SK에코ENG	1,808	7.7	현대ENG	71,180	7.2
5	SGC E&C	1,302	6.2	대우건설	1,686	7.2	GS건설	70,766	7.2
6	HD현중	1,147	5.4	두산Enb.	883	3.7	대우건설	70,178	7.1
7	인국공	328	1.6	삼성E&A	877	3.7	디엘이앤씨	47,924	4.9
8	서부발전	321	1.5	현대로템	867	3.7	SK에코플	47,299	4.8
9	엘티삼보	282	1.3	GS건설	709	3.0	두산Enb.	45,185	4.6
10	쌍용건설	236	1.1	디엘이앤씨	461	2.0	HD현중	38,369	3.9
<b>1~10위</b>		<b>19,328</b>	<b>91.5</b>	<b>1~10위</b>	<b>21,562</b>	<b>91.6</b>	<b>1~10위</b>	<b>709,804</b>	<b>72.1</b>
기 타		1,784	8.5	기타	1,969	8.4	기타	275,138	27.9
<b>합 계</b>		<b>21,112</b>	<b>100.0</b>	<b>합계</b>	<b>23,531</b>	<b>100.0</b>	<b>합계</b>	<b>984,942</b>	<b>100.0</b>

[출처: 해외건설협회]

## II. 참고자료

### 참고1

### 2024년 주요 신규 계약 공사목록

국가	업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액 (백만불)	계약일	주요특징
사우디	삼성E&A	아람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 패키지 4	사우디 아람코	4,182	2024-04-15	'24년 최대규모
사우디	삼성E&A	아람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 패키지 1	사우디 아람코	1,898	2024-04-15	
사우디	GS건설	아람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 패키지 2	사우디 아람코	1,223	2024-04-15	
헝가리	삼성E&A	삼성 SDIHU 2공장 신축공사	삼성SDI 헝가리	1,430	2019-05-21	그룹사 공사 (증빙지연)
카타르	HD현대 중공업	알 사히 유전 Ruya Batch 1 프로젝트 해상 플랫폼 EPC1C 13	North Oil Co.	1,147	2024-01-30	1분기 최대규모
미국	현대건설 현대ENG	S-JV BATTERY CELL GEORGIA PROJECT	HSAGP ENERGY LLC	(신규)896 (중액)340	2024-02-26	그룹사 공사
사우디	SGC E&C	SEPC Ethylene Cracker Expansion 프로젝트	Saudi Ethylene & Polyethylene Co.	503	2023-12-21	
브라질	GS건설	Ourinhos 수처리 컨세션사업	Ourinhos 지방자치단체	331	2024-07-01	투자개발형
필리핀	인천공항공사	마닐라 니노아키노 국제공항(NAIA) PPP 사업	필리핀 교통부	307	2024-03-18	투자개발형
브라질	GS건설	CESAN 하수 재이용 컨세션 사업	CESAN	282	2024-06-11	투자개발형
오만	GS건설	구브라 3 컨세션 사업	Oman Power & Water	276	2024-02-25	투자개발형
사우디	현대건설	현대차 CKD 자동차 반조립공장	현대자동차	248	2024-07-23	그룹사 공사
사우디	SGC E&C	APOC IPA(이소프로필) 프로젝트	Advanced Polyolefin Co.	191	2024-02-17	
UAE	한국서부발전	아즈반 1,500MW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	에미리트 수전력공사	187	2024-05-01	투자개발형
사우디	SGC E&C	에틸렌초산비닐(EVA) 생산설비 DBN 프로젝트	SIPCHEM	187	2024-08-07	
싱가포르	엘티삼보	마리나베이 샌즈 복합리조트 2(IR2) - 기초공사	마리나 베이 샌즈	170	2024-06-13	
사우디	SGC E&C	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PDH/PP) 생산설비 DBN 프로젝트	알-와하 석유화학회사	169	2024-08-26	
인니	현대ENG	KT&G 생산공장 신축공사 (KI Project)	KT&G 인니법인	166	2024-04-22	
인니	SK에코엔	SK플라즈마 L-프로젝트	SK플라즈마	150	2024-03-18	그룹사 공사
말련	SGC E&C	OCIKUMHO ME1 프로젝트	OCI금호	142	2023-12-22	그룹사 공사
오만	한국서부발전	오만 마나 500MW 태양광 IPP 사업	Oman Power & Water Proc. Co.	134	2023-03-23	투자개발형
UAE	쌍용건설	크릭 워터스(Creek Waters) 럭셔리 주택 사업 A009	The Lagoons Phase One LLC	112	2024-02-07	
UAE	쌍용건설	크릭 워터스(Creek Waters) 럭셔리 주택 사업 A011	The Lagoons Phase One LLC	111	2024-02-07	
말련	SGC E&C	OCIM MP7 프로젝트	OCIM Sdn.Bhd	110	2023-12-22	그룹사 공사
미국	중원ENG	LGES-혼다 JV 배터리 공장 - 코터 1-5 호기 열류배관, 급배기덕트 설치공사	L-H (LG+혼다)	96	2023-08-01	

[출처: 해외건설협회]

**참고2**

**세계건설시장 동향**

○ (세계건설시장) '24년 세계건설시장은 지난해(14.1조불) 대비 **3.2% 성장한 14조 5,952억불** 전망(S&P Global IHS Markit, '24.7)

- 경제성장 둔화, 고금리 기조 지속, 원자재가·운송비 상승 등의 여파로 세계건설시장은 3분기 연속 성장률 하향 조정(6.0% → 4.4% → 4.3% → 3.2%)

\* IHS의 2분기 발표 전망치 대비 인도(-2.7%, -246억불), 일본(-6.2%, -311억불), 사우디(-13.6%, -207억불), 미국(-1.9%, -405억불) 등 건설시장 규모 조정 영향(고금리→투자위축→사업지연)

**<연도별 시장 규모 및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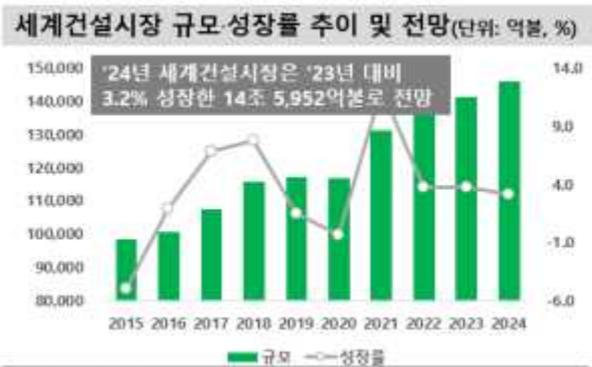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장 규모	규모(조 달러)	10.4	9.9	10.0	10.8	11.6	11.8	11.7	13.1	13.6	14.1	14.6
	성장률(%)	4.0	-5.0	1.9	6.8	7.7	1.5	-0.3	12.2	3.8	3.7	3.2
해외건설 수주 증가율(%)		1.2	-30.1	-38.9	27	10.9	-30.5	57.4	-13.0	1.3	7.5	-

[출처: IHS Markit, 해외건설협회]

※ 세계건설시장 성장률은 해외건설 수주 증감에 영향

- 세계건설시장은 **발주환경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9.6%), 친환경사업 발주 확대가 예상되는 북미·태평양(6.8%),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남미(7.0%)** 등을 중심으로 성장 전망

- 아시아(1.7%), 유럽(2.0%) 시장은 2% 내외 성장이 전망되며, 아프리카 시장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20.5%) 예상



[출처: IHS Markit]

구분	2023	2024	성장률
중동	6,205	6,797	9.6
아시아	65,168	66,280	1.7
북미·태평양	27,286	29,130	6.8
아프리카	1,295	1,029	-20.5
유럽	34,370	35,060	2.0
중남미	7,153	7,656	7.0
합계	141,477	145,952	3.2

[출처: IHS Markit]

○ (국제유가) 해외건설 수주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러-우, 이스라엘-하마스/이란 등), OPEC+ 감산(~'24.12월)\*, 미국의 수출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24~'25년 75~79불/배럴 전망(HSBC '24.9 등)

\* OPEC+는 그동안 고유가 유지를 위해 '25년까지 원유감산에 합의했으나, 점유율 확대를 위해 '24.12월부터 생산량 증대 추진(FT, '24.9.26)

**참고3**

**지역별 건설시장 동향 · 전망 · 주요특징**

□ 중동

○ '24년 중동 건설시장은 GCC 등 주요국이 글로벌 유가전망 하락에 따른 보수적인 정부 재정지출, 이스라엘발 정세 불안, 美대선 등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발주여력은 관망이 필요하나, 전 세계적인 저탄소 기조에 석유가스산업 고도화 및 석유화학 업그레이드, 역내 철도연결 프로젝트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8.5% 증가한 6,916억불 기록 전망

\* '24년 GCC 주요국 재정유가 축소 전망(ex. 사우디 80.9불/배럴 →75.1불, UAE 55.6불 →54.8불 등)

- '24년 사우디 건설시장은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국부펀드(PIF)가 주도하는 기가프로젝트(네옴시티, 키디야 등)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 (1,386억불) 대비 9.1% 성장한 1,317억불 전망

\* 단, 네옴시티의 경우 자금조달 및 민간투자 유치 난항으로 인해 축소 및 지연될 전망

- UAE 건설시장은 고유가 기조 유지(70~80불대)와 '24년 지출예산의 42%를 도로, 터널, 교통, 재생에너지원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9.3% 성장한 1,129억불 규모를 기록할 전망으로 Taweelah-Ramhan Island 링크 개발(300억불), 두바이 전략적 하수터널(220억불), 루와이스 LNG 수출터미널(45억불), 두바이 메트로 블루라인(30억불), 에티하드 철도 3단계(100억불), 칼리파 항만 2단계 공사(78억불) 등 주요 프로젝트 발주 예상

- 카타르는 역내 관광 중심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마드 국제공항, 메트로 확장 등 교통 프로젝트와 North Field LNG 사업, 라스라판 석유화학 콤플렉스, 청정 수소·에틸렌 플랜트 등 세계 1위의 천연가스 대국으로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한 에너지 사업 중심의 발주를 지속하며 전년 대비 12.8% 성장한 588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이란 기획예산처(Planning and Budget Organization, PBO)는 '24년 인프라 예산에 60억불 이상을 배정하였으며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288억불) 대비 9.5% 증가한 321억불을 기록할 전망. 다만, 핵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지연은 경제 악화(인플레이션 및 화폐가치 하락 등)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24년 연말 美 대선이 제재 향방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이라크는 '23.3월 승인된 1,507억불 규모의 예산(안) 기반의 운영 및 투자지출이 계속될 계획으로 '24-'27년 기간동안에 5%의 견실한 성장 지속 전망. 특히 '24년에는 그간 지연되어온 180억불 규모의 국책사업(5개의 신도시 프로젝트, 바그다드 메트로 등) 완료에 집중할 계획

- '23년 튀르키예 건설시장은 23.2월 발생한 지진 복구사업과 에르도안 대통령 연임('23.6)에 따른 교통·주택 부문 중심의 인프라 발주 기대로 전년대비 26.7% 성장한 1,208억불로 추정되며, '24년에도 주택 및 공공서비스 부문 재건, 교통 및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19.2% 성장한 1,513억불을 기록할 전망
- 이집트 건설시장은 파운드화 평가절하,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24년 역성장하였지만(6.6%) 향후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카이로 메트로, 신 행정수도(NAC, New Administrative Capital) 건설 등)의 영향으로 '25~'27년 3년 동안 평균 10% 이상 고성장 전망

## □ 아시아

- '24년 아시아 건설시장은 전년비 2.0% 성장한 7.1조불(세계건설시장(14.5조불), 48.7%)로 전망되며, 아시아 건설시장의 58.5%를 차지하는 중국('24년 4.1조불)의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동남아 주요국의 교통 및 발전 중심 대규모 사업추진이 건설시장 성장 견인 전망
- '24년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비 5.8% 성장한 4,428억불로 예상. 10월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 예정인 프라보워 당선인의 신수도 건설 사업 계승 계획과 교통 인프라 개선 공약 등에 힘입어 건설시장 지속 성장 전망. 현재 신수도 1단계('22-'24/ 대통령궁, 조정장관실, 및 수력·전력 시설 등) 사업 공정률은 93%('24.8 기준)이며,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2단계('25~'29)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예상
- 필리핀 건설시장은 교통, 에너지 및 공공주택 인프라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비 5.6% 성장한 576억불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BBM(Build, Better, More)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4년 상반기 111억불을 투입했으며, BCIB 교량(30억불), PGN 교량(30억불) 및 LLRN 순환도로(30억불)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추진 중
- '24년 말레이시아 건설시장은 전년비 5.2% 증가한 444억불 규모이며, '24년 예산편성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우수한 기반시설 제공'을 제시하는 등 인프라 분야에 예산배정을 지속 확대하고 있음. 특히 페낭 경전철(20억불), 말-싱 고속 철도(200억불) 사업과 페낭 국제공항을 포함한 4~5개 공항 확장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추진될 전망
- '24년 베트남 건설시장은 496억불 규모('23~'33년 연평균 8.4% 성장)이며, 지속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정책을 통한 산업단지 등 관련 산업시설 확대와

함께 북남고속철도(670억불), 룡탄신공항(137억불) 등 대형 교통인프라 사업, 국가전력개발계획(PDP8, '23.8)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24년 인도 건설시장 규모는 8,870억불로 중국(4.1조불)과 미국(2.1조불)에 이은 세계 3위 시장이며, 전년비 11.1% 증가한 1,340억불(Rs11조) 규모 인프라개발 예산('24/25년)을 바탕으로 가티샷티(Gati Shakti) 국가마스터플랜('21~'46, 1.2조불(Rs100조) 규모) 등 정부의 인프라 주도 성장 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
-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파키스탄은 지속적인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누적 외채가 1,037억불에 이른 방글라데시는 최근 정치 소요 사태 및 자연재해(홍수)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

#### □ 중앙아시아

- '24년 중앙아 건설시장은 70~80불대의 유가 유지로 인한 카자흐, 우즈벡, 투르크 등 산유국의 발주 여력 강화와 러시아의 대체 시장이자 우회통로로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의 투자 증대가 예상되어 광물, 교통인프라,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신재생 부문 발주가 탄력을 받을 전망
- 역내 주요 사업으로 손꼽히는 EU 주도의 카스피해 횡단회랑 사업, 카자흐 제1원전 사업, 투르크메니스탄 암모니아/요소 인산 플랜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안디잔, 타슈켄트-사마르칸트 유료 고속도로 사업 등 본격 추진
-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 역내 높은 루블화 의존도로 인한 환율 변동성, 對러시아 제재 강화에 따른 외국인투자 감소 리스크, 고물가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 등의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

#### □ 중남미

- '24년 중남미 건설시장은 주요국 경제 상황 개선 및 공공사업 추진 확대에 힘입어 전년비 7% 증가한 7,656억불(세계건설시장(14.5조불)의 5.2%)로 전망
- 페루는 APEC 2024 주최를 앞두고 항만, 공항, 철도 및 도로 등 다양한 민관협력 및 인프라 사업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전년비 7.5% 증가 전망
- '24년 브라질 건설시장은 My Home My Life 주택공급 정책, 전기차 산업 투자 증가, 태양광 및 발전소 투자에 힘입어 전년비 1.3% 성장한 1,919억불 전망

- 멕시코 건설시장은 현 정부 여당 후보자가 대선 승리를 거두면서 정책 변동성이 낮아졌고, 임기 만료 전 계획됐던 마야 철도 및 AIF공항 사업 추진으로 전년비 13% 증가한 2,659억불 전망
- 파나마 건설시장은 정부가 다수의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나마 운하 제4교량 및 메트로 3호선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진행 등으로 전년비 8.2% 증가한 576억불 전망
- 한편, 중남미에서 가장 큰 데이터센터 시장을 보유한 칠레는 공공사업부가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나, 높은 건설비용과 세금 등 재정 정책 개정의 영향으로 건설시장은 전년비 -4.9% 성장 전망. 이 밖에 아르헨티나는 공공지출 삭감 및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14% 성장 전망

## □ 아프리카

- o '2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높아진 정부 부채비율(아프리카 평균부채비율 10년간 두배증가 <sup>2013</sup>30% → <sup>2023</sup>60.1%), 사헬(Sahel) 및 서아프리카 일대 쿠데타 확산에 따른 외국 투자자본 유출 등의 요인으로 3.1%의 제한적인 성장 전망
-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자체 유전(세네갈 등) 및 가스전(탄자니아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유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특히 에티오피아는 대규모 석유와 에너지 투자를 유치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성장이 예상
- 2024년 동아프리카는 AfC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역내 교역이 활성화, 민간 투자 확대 정책 및 해외 직접 투자(FDI) 증가 등에 힘입어 교통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하라 이남 건설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전망(에티오피아 8.7%, 탄자니아 5.8%, 케냐 5.5%)
- 2024년 가나 건설시장은 도로 6,000km 건설 등을 포함한 교통 네트워크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마스터 플랜(REMP) 달성을 위한 투자 증대로 3.2%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4년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은 원유 증산 목표에 따른 투자(135억불) 및 정유 공장 개보수 공사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인플레이션 및 페그제 폐지로 인한 환율가치 하락으로 인해 1.2%의 제한적 성장 전망

## □ 유럽

- '24년 건설시장은 물가 급등과 고금리, 소비침체에 따른 주택, 산업 부문 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명목기준 2.2% 증가한 3조 5,452억불이나, 실질성장률은 -0.4% 성장 전망
- 다만, 유럽 간 연결성 강화, 독일 등 서유럽 국가의 인프라 건설지출 증가,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 중·동부 유럽(CEE) 중심의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물류·에너지 인프라(LNG, 태양광 등)사업 발주, 온실가스 선도 지역으로서 재생에너지 투자 등의 긍정적 전망도 공존
- '24년 우크라이나 건설시장은 수도 키이우 및 서부를 중심으로 철도, 항만 등 교통·물류 인프라 위주의 EU 연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원조의 본격적인 사업화로 '23년 대비 40.7% 성장한 147억불이 전망되나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정권이양 불안정성 확대, '24.11 미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전쟁 교착 상태 장기화 등의 리스크가 상존
- '24년 폴란드 건설시장은 고인플레이션으로 명목기준 13.3% 증가한 1,646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실질 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으로 예상. EU 기금의 인프라 투자, 중앙교통허브(CPK)사의 신공항, 철도, 도로, 원전 등이 인프라 부문 성장을 견인

[출처: IHS Markit, BNamericas, 해외건설협회]